



오인회 소식

2015. 5월(제44호)

발행인의 말

포기와 탐구 사이, 지금도 답답한가?

답답하다는 의문은 우리를 그 속에 빠지게 한다.
그때 왜 답답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자.
그러면 왜 답답한지 내용이 주절주절 나올 것이다
그때 잠시 멈추라. ...
지금도 그 답답함이 있는가? ...

그러자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은 '지금' 으로 돌아온다.
이때 마음과 마음 사이의 공백이 알아채 진다.
일어나는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사이의 공백...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것이 일어나기 전이나 일어나는 중이라도

상관없이 항상 비어있는 자리,

거기에 시선이 가는 순간 마음은 '없음' 이며, 자유이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 과정은 어떠한가?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채면 이제,
"그래서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나 '나' 를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주체가 곧 대상이다.
'나' 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무언가'란 놈이 바로 그 '나' 라는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고 하면' 이 '나'란 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는 '나' 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이놈' 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이놈' 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탐구를 하려 하면
그것은 '이놈' 을 만드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이 탐구를 포기하면 '이놈' 은
여전히 존재(健在)하게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찾기를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탐구를 계속할 수도 없는 딜레마,
그 갈등의 순간에 하나의 질문,

'지금도 답답한가?'

그때 번뜩하고 알아챈이 생겨난다.

-越因-

청년 백일학교 후원방식

2년 운영후원 : 300만원(일시불)
 2년 일시후원 : 120만원(일시불)
 2년 24회 후원 : 120만원(1달 5만원)
 1년 일시후원 : 60만원(일시불)
 1년 12회 후원 : 60만원(1달 5만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문의 : 02-747-2261

청년백일학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후원액 5175만원)
 초현 1300만원, 천강 1300만원, 구당 1000만원
 지원 300만원, 우현 300만원, 고을 300만원,
 화동 120만원, 허유 120만원 무연 120만원
 문수홍 60만원, 광주나무 60만원, 아름드리 60만원
 바람 60만원 (11,17, 12,17,1,16,3,19,4,29)
 씨이 30만원
 디테 20만원 (11,20, 12,22,2,23,4,20)
 도빈 10만원
 솔내음 15만원 (2,25,3,25,4,27)

1차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하는
것이다."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10일 양일동안 미내사
 서울 강의장에서 우현님의 새로운 강좌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하는 것이다." 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실제 실습을
 통해 공부를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뇌'이며 그렇기에 나의 역할은 공부를
 하는 주체에서 조력자로 바뀌어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없이 놀라운 학습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강좌에 참석하신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좌는 6월 20일과 21일 양일동안 진행됩니다. 오인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3차 자연에 말걸기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5월 15일에서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남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639-3 에서13차 자연에
 말걸기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
 유기체적 지성으로
 연결되어있음을 체험하고

우리의 내적자연에 자연에 다리를 놓아 밖에서 보는 외적 자연과 함께 내면의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주신 성암님과 참석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저절로 깨우쳐 알게 된 매일의 자연에 대해, 좀더 직접적으로 함께 있는 식물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으로 시들고 병드는 모습을
 접하면서 둔감한 나 자신을 반성하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자 참여하였습니다. 2박3일 동안 참여하면서 느낀점이 많지만 그중 특히 자연에
 말걸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한다는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내가 자연과 동등한 존재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다양한 연습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는 점과 이곳에서 배운 자연과의 관계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관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분들의 경험요약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3차 자연에 말걸기 광주나무님 참석
 후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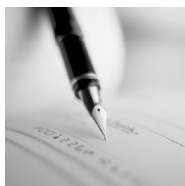
2차 '삶의 진실 청년 백일학교' 가 6월 16일 (화) 오후 2시 부터 100일 동안 진행됩니다.

청년 100일 학교에서는 끊임없는 일깨움과 힌트를 주는 안내자와의 생활을 통해 스스로 해내기 힘든 깨어있는 삶에 대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몸, 마음에 그 삶이 '배이도록' 하면 이제 일상에서도 관성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뜻있는 분들의 후원에 의해 무료로 진행되며, 미내사 클럽 홈페이지 청년 백일학교 신청란 에서 신청서를 받아 기록해
 보내주시면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알려드리니 먼저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3차 깨어있기 기초과정이가 6월 12일 (금) 오후 2시 부터 14일 (일) 오후 3시 까지 진행됩니다.

16차 깨어있기 계절수업이 6월 27일 (토) 오후 2시 부터 28일 (일) 오후 3시 까지 진행됩니다.

깨어있기 계절수업은 그동안 깨어있기 워크숍에 참가했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 계절마다 한번씩 진행됩니다.
 일상에서 좀더 유용한 연습을 위주로 꾸준히 자신을 살피고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커리큘럼으로 준비됩니다. 이번 16차
 계절수업의 주제는 지난 15차와 마찬가지로 <감지 인텐티브> 과정으로 진행되며, 설명이 많았던 지난 번과 달리 이번에는 심도있는 연습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오인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궁금해 하는 것'조차 모두 하나의 '느낌'이다 도건 인터뷰(5)

도건道健님은 성균관대 생명공학부를 졸업한 학생으로 중학생 때부터 근본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4살이 되던 해에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본 후 '나'라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고, 때마침 성지님의 도움으로 미내사의 깨어있기 기초과정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과정 이후에 '나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찾아왔고, 이를 더 깊게 탐구하기 위해서 백일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기 기초 과정을 공부하면서 변화되는 과정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찾아온 통찰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

편: '지우려고 하는 나'를 봄으로서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도: 아주 일시적인 해방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방감을 느끼는 나'가 다시 생긴 것이죠. 결국,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곧바로 마음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더 있을 거야.' '아직 부족해'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켰죠. '내가 생각했던 통찰과는 너무 달라.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과 함께요. 제가 생각했던 통찰은 황홀경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화목해 보이며,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모든 창의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외계인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될 줄 알았어요. 태양계를 벗어나 어디든지 볼 수 있게 될 줄 알았죠.

편: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 그 모든 생각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오인회를 3번째 올 때까지는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4번째 왔을 때, 아름드리님, 허유님, 나무님, 썬이님 이야기를 꼭 듣다 보니 제가 '어느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챘어요. 그 모임이 끝난 후 지하철을 타고 좌석에 딱 앉는 순간에 통찰이 오더라고요. '그 궁금해하는 것조차 모두 하나의 느낌'이라는 사실어요. 그것이 해결되니까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편: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마음속에 올라오는 느낌을 역추적해서 무언가를 지우려고 한 자신을 지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空)해지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을 알게 모르게 알아채고 구별하는 '나'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마음은 편해졌지만 답답함은 여전히 있다가 최종적으로 그 '답답해하는 나'조차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네요.

도: 그래서 오인회라는 모임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죠. 사실, 저는 '선생님 이야기만을 듣고 따르자'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선생님 외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듣지 않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인회에서 선생님 강의도 계속 듣고,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 자신을 더 잘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도 저런 실수를 했었는데.'라고 생각을 하던지,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해보질 못했구나.'라고 알게 되었죠. 이 부분에서 힌트가 많이 있었어요.

편: 오인회 나온지 얼마 안 되었죠?

도: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편: 일상에서 감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예전과 달라진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도: 감지로만 보게 되니, 친구들이 욕을 해도 어떤 사람들이 독설을 날려도, 제 약점을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짜증과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느낌이 올라와 제 몸을 휘감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제 깊은 마음을 뒤흔들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제 경험이 아직 부족하여, 상대방에 대한 깊은 동일시를 느끼기는 힘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한도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모든 주의를 쏟죠. 그럼 상대방의 욕에 빠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보는 것이죠.

모든 감정과 생각이 하나의 느낌이라는 것을 아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휘둘린다 하여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휘둘러도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일상 대부분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 친구의 주위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 알아채니까, 말을 하기도 편해지고, 그 친구의 진심을 알아채기도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편: 상대방이 원하는 의도가 잘 보인다는 것이죠?

도: 마음의 작용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지가 더 날카로워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편: 혹시 이 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도: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기 싫다는 생각에 아주 강한 에너지를 보내고 있음이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진행시켜나가면서 그 싫은 생각에 대한 에너지를 분산시켜 줬어요. 그 싫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근본 이유를 찾아내서 진짜 현실과 다름을 알려주고, 좋은 생각으로 주의가 갈 수 있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친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경험의 기준만으로 남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이 잘 안 되었는데, 감지를 통해서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니, '나'라는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예전보다 더 잘 듣게 되었어요. 이제 제 경험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쓰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것이죠. 사람 관계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고, 충돌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충돌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 그럼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 될 것이 없겠네요?

도: 충돌과 이견은 계속 있겠죠.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뒤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편: 이 공부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나, 해결된 문제가 있나요?

도: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구심은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요즘 허무함이 많이 올라와서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고 선생님이 그렇게 있으면 안된다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할 것 같은 한데, 예전과 마음을 쓰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져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편: 어떻게 다르죠?

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니면 '멋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겠어' 라던지

'나는 깨달음을 얻을 거야.'와 같은 항상 강력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살아왔죠. '나'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느낌이고 현상임을 아니까, 예전과 같은 동기로는 더 이상 마음의 힘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 자체가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느낌으로 환원되던지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 쓰는 법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나'에 미묘하게 빠져있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되요. 그래서 100일 학교에 가서 잘 배우려고요.

편: 100일 학교는 언제 갈 생각이죠?

도: 11월 7일 날이요. (이 인터뷰는 100일 학교 참석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편: 그럼 앞으로 뭔가 세워 놓은 계획이라든지 목표는 없고?

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힘이 안 나요. 지금 이상태가 너무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00일 학교를 가려고 해요. 선생님이 본질적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위태로워지고 심해지면 누구도 못 말리는 천방지축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셨기 때문이라도 얼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것도 많이 채워서 잘 뿌리박고 올 생각입니다.

편: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도: 일단 제가 이런 공부를 한 것이 짧아서 경험이 너무 적어요.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 함께한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저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것도 아니라서 결국 제 경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 경험만으로 봤을 때는 '자신 스스로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되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의심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 학생의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선생님이 정말 옳은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신이 생기신 분이라면 그냥 무작정 연습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을 신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직접 자신의 마음에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결국 연습이죠. 자전거 타는 걸 연습하듯이 하세요. 저는 '깨어있기' 책과 '관성을 넘여가기' 책을 처음 봤을 때,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랑 직접 만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편: 어떤 모습에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도: 일단 성지형과 '우리'가 100일 학교를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것을 보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이 100일이 지날 때마다 인간 개조가 되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8월 6일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3일전에 내려와서 함양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곳을 찾아왔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저의 감정을 뒤흔들어서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선생님에게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이 제 감정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했는데, 그랬더니 방금까지만 해도 안전부절못하던 제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작은 불신과 의심까지도 없어졌어요.

편: 직접 월인 님을 뵈면서 믿음은 갖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온 거네요.

도: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불안해지면 무조건 선생님을 찾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저의 마음을 뒤흔들게 해준 그분에게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일상생활에서도 만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줬으니까요.

편: 지금 이 모든 것이 함양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도: 일단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나서 1년이나 2년 후에 했다면, 지금처럼 생생하게 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까먹었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편: 무엇을 까먹은 거죠?

도: 함양에서 있었던 과정들과 거기서 얻은 느낌들이요.

편: 그래도 일기로 다 기록을 했잖아요?

도: 맞아요. 그 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까먹고 있었다가 일기를 통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느낌이 남아있는 선에서 최대한 불러일으킨 거죠. 언젠가 함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느낌이 아직 생생할 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 그 생생함이 다른 사람에게 더 쉽고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네요.(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승기신론(27)

월인

이제 이상(異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異)는 파도의 모양처럼 바뀌고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굴을 보면 굴의 맨 처음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죠? 상은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상이 여섯 개가 있는데 탐(貪), 진(瞋), 치(癡), 만(慢), 의(疑), 견(見)이 그것입니다.

탐(貪)은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瞋)은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화내는 것입니다. 화는 왜 날까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믿는 집착으로부터 화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생각 자체는 옳은데 문제는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하면 그만인데 왜 주장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회정의를 실현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이런 나쁜 놈."이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사회정의 실현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화내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瞋)이에요. 치(癡)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탐(貪)과 진(瞋)이 헛된 것이라는 것, '나'라는 상(相)이 텅 빈 공(空)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만(慢)은 오만함입니다. 오만은 아만(我慢)과는 다릅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만(我慢)이라면, 오만은 아만과 비슷하지만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인데 아만(我慢)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만은 상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의(疑)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빠져있는 것이 미혹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깨침의 도리를 듣고 나서 뭔가 가슴에 와 닿긴 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유야무야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진리에 대해 어떤 느낌이 오기에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껏 살아온 편한 길로 가는 것이죠. 직관적으로는 이견 어리석은 짓이고, 미혹에 빠져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의심 속에 있어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見)은 잘못된 모든 견해를 말합니다. "이게 진리야."라고 주장하는 모든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든 아니든 간에 모든 주장하는 견해는 견(見)에 속합니다. 이렇게 탐(貪), 진(瞋),

치(癡), 만(慢), 의(疑), 견(見) 여섯 가지의 심상의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이상(異相)입니다.

다음은 멸상(滅相)입니다.

멸칠(滅七)은 무명(無明), 즉 어리석음이 이룩(異六)과 결합해서 일으키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몸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멸상(身三)과 말이 만들어내는 네 가지 멸상(口四)이 있는데, 이런 길로 들어서면 멸망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삼(身三)은 살생, 도둑질, 간음입니다. 자기가 먹고살기 위해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재미로 죽이는 것이 살생입니다. 먹고사는 것 중에도 너무 많이 먹으려고 죽이는 것도 살생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데 탐하고 즐기 위해 간음하는 것도 신삼에 해당합니다. 말이 만들어 내는 구사(口四)는 거짓말, 다른 사람을 성내게 하는 말, 두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멸상(滅相)은 원리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생주이멸하는 상(相)에 빠져있는 것이 망념이고, 이런 상(相)들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본질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각(覺)과 불각(不覺)이 같이 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구경각(究竟覺)으로의 단계를 강의하면서 범부의 각(覺)과, 생각에 대해서 깨친 상사각(相似覺), 생각에 아트만(Atman, 불변하는 나)이 없음을 깨닫는 수분각(隨分覺)과 마음의 작용을 만들어 내는 관성적이고 미세한 관념까지 모두 떠나는 본각(本覺)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본각(本覺)이 궁극적인 각이고 알아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 초상무념(初相無念)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구경각으로의 단계에서 나왔던 각심초기심무초상(覺心初起心無初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경각(究竟覺)은 모든 걸 다 깨끗이 지워버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분명히 봤기에 미세한 염(念)마저도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如菩薩地盡，滿足方便一念相應，覺心初起心無初相，以遠離微細念故得見心性，心即常住，名究竟覺。是故修多羅說若有衆生能觀無念者，則爲向佛智故。

여보살지진, 만족방편일념상응, 각심초기심무초상, 이원리미세념고득견심성, 심즉상주, 명구경각, 시고수다라설 약유중생능관무념자, 칙위향불지고,

보살지가 다한 정도의 사람은 방편을 만족시켜 일념이 상응하고,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것을 보아 마음에 초상이라는 것이 없음을 아니, 이는 미세념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의 본성을 본 것이니 마음이 항상한다. 이를 이름하여 구경각이라 한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경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살지가 다한 사람(如菩薩地盡)은 통찰력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이런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방편들을 다 만족하여 한 생각이 상응하게 됩니다. 각심초기(覺心初起)는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바다에 비유하자면 파도가 처음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생겨서 드러날 뿐 스스로가 현상화 되어 나타나지 않듯이 마음의 본성 역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일어나 파도칠 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 마음이 일어나 파도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각심초기입니다. 심무초상(心無初相)의 초상(初相)은 마음의 최초의 상을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최초의 작용 즉 마음이 현상화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나는 이제 알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상(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심무초상입니다. 마음에 처음 보이는 그런 상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깨달은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마음의 작용을 알아챌이 일어날 뿐, 알아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상(相)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초상이 없기 때문에 미세한 마음, 생각, 관념까지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쌓였던 것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상이라는 것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를 깨달았기 때문에 미세념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득견심성(得見心性)이고, 이렇게 마음의 본성을 얻은 마음은 곧 상주(常住)합니다.

각심초기(覺心初起)부터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맨 처음에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의식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으로, 즉 나와 대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장 처음 일어나는 일은 태극이지만 태극은 분열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화하지 않은 단계이고, 태극이 '나와 대상'으로 나뉠 때 드디어 '얹' 이나 '느낌' 이 일어나는 현상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바다가 잔잔하여 움직임이 없다가 어떤 움직임이 생겨나 '골과 산' 이 있는 모습으로 출렁이는 것이 파도인데, 이 파도에 필수적인 산과 골을 음양(陰陽)의 구조라고 볼 수 있듯이, 마음은 나와 대상이라는 형식의 동시적 구조로 일어납니다. 의식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나와 대상으로 처음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열이 없으면 의식, 느낌, 그 무엇과의 동일시 등이 전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다에 비유해본다면, 마음이라는 바다는 스스로 드러남이 없는데 나와 대상이 생겨서

파도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나' 라는 것도 파도이며 하나의 마음 작용일 뿐임을 알게 되어 '깨달은 자' 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뭔가를 얻었다거나 깨달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마음의 작용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와 대상' 이라는 미묘한 파도 속에 들어간 것이네요.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처음 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동안 '나와 대상' 으로 나누던 습성이 그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봤어.' 라는 관성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다에는 사실상 파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도란 바다가 움직인 모습일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나와 대상' 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대상' 의 모습들은 수시로 변하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 라고 여겨지는 이 느낌은 밤이 되면 사라지고, 몰입할 때 사라지고, 마음이 다른데 쏟아져 들어가면 느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나' 라는 느낌이나 생각도 파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파도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의 움직임만 있듯이, 마음에도 마음의 본성만 있을 뿐 생겨난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누군가 "파도는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있다' 고 말하려면 그것이 꾸준하고, 오래 지속되고, 영원히 변함없어야 합니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죠.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해일처럼 조금 오래가기도 하지만 조만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대상이라는 현상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타난 모습일 뿐, 실제로는 마음의 본성만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대상이라는 마음의 파도가 생겨나면, 이 '나' 에 자꾸 에너지가 끌려들어 가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파도들의 속성입니다. 그런 속성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에너지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을 드디어 보게 된 것이 각심초기(覺心初起)입니다. 그 마음의 작용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이 초상(初相)인데, 이 상(相)을 '아는 것' 과 '알아채는 것' 은 다릅니다.

"이것은 안경집이구나" 하고 '안다' 면 그것은 상(相)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마음이 우주적인 원리나 원칙을 파악했는데, 그 파악 안에 파악하고 있는 '자기' 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짜 파악이고 '알아챈' 입니다. 이처럼 상(相)이 아닌 '작용하는 모습' 을 파악하고 알아챈 것이 '마음에는 상이 없다' 는 심무초상(心無初相)입니다. 마음이 처음 생겨날 때 정해진 상(相)이 없다는 것이죠. 즉, 고정 불변하는 어떤 모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 라는 느낌 등의 임시적인 모습은 있어요. 이런 모습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은 현상 자체가 사라져 무(無)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고정 불변하는 상(相)이 없음을 말함이며, 있다면 늘 가변적인 임시적인 모습만 있을 뿐임을 말합니다. 마치 아메바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아메바는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어떨 때 보면 분명히 이렇게 생겼는데 또 바뀌므로 그 모습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깨달은 상(相)이 있다는 것은 깨달은 누군가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심무초상(心無初相)은 그 누군가란 것도 상의 일종임을, 마음이 지어내는 허구임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알아챈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보는 것이고, 마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을 보는 것이고, 그 작용이 고정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작용 중의 하나가 바로 '내가 알아챘다.' 는 것으로 이런 것을 자기 언급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나와 대상을 나눠 작용한다.' 는 것이 명제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나' 도 역시 그 작용 중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알았어." 한다면 '무언가' 를 '안' 것이죠? 이렇게 '무엇' 이 있고, '없' 이 있고, '아는 자' 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다시 나, 대상, 앎이라는 순환 고리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앎' 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 대상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그것을 알아챈 것마저도 나, 대상, 앎이라는 무한 고리 속에서의 일이므로 "나는 알았어."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묘한 문제입니다. "나는 알았어." 라고 마음이 떠드는 순간, 그것은 '무언가' 를 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작용에 '무언가' 가 있다는 것인데, 마음의 작용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법칙이 있을 뿐 변함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바탕은 있을지언정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비유해서 한 말일 뿐입니다.

마음작용 중의 하나가 '있다, 없다' 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의 작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도 마음의 작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작용 밖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있고 없음마저도 아니고, 있고 없음마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 작용 속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승기신론이 마음의 본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어" 라고 '믿고 느끼고 아는' 이 순간 자체가 마음의 회로 속에서의 일입니다. 마음의 본질은 회로 속을 흘러 모니터에 화면을 만들어내는 전기와 같습니다. 회로 속에 빠졌다는 것은 모니터에 '나' 와 '대상' '앎' 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경험했어" 도 바로 그런 모니터 안의 현상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왜? '나' 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무엇' 도 당연히 있겠죠. 그것은 무아(無我)가 아니라 유아(有我)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나와 대상' 속에 한번 빠지면 점차 큰 '나와 대상' 속으로 빠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현상 속에 빠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와 대상' 이라는 무한 반복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 했어" 를 허용하면 '나와 대상' 도 마음이 허용하게 됩니다.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작용을 깨달으면 잡을 마음의 상(相)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철저해지면 미세한 생각까지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즉 미세한 관념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흔히 뭔가 파악하고 나면 미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세한 관념이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며, 미세한 관념이 있다고 여기는 마음은 마음의 초상(初相)이 있는 사람, 즉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내가 붙잡았어." 라는 상(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혜능은 점수(漸修)가 필요 없다 하고 돈오(頓悟)를 주장하였습니다. 잡을 상(相)이 없는데 무엇을 없애고 닦아내느냐고 한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볼까요? 혜능이 홍인스님을 만나 석 달 동안 방아만 쪼고 있을 때였습니다. 홍인 스님이 제자들에게 발견한 것을 시로 지어보라고 하니, 수제자인 신수가 "우리의 몸은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깨끗한 거울과 같으니 계속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내서 청정한 지대에 이른다(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塵埃)" 는 글귀를 밤중에 몰래 써놓았습니다. 그러자 글자도 모르는 혜능이 옆의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수의 시를 듣고 그 옆에 자기 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리(菩提)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쌓이겠는가(菩提本無樹 明鏡亦非台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혜능은 잡을 것이 없음을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관성이 남은 사람들은 자꾸 닦아내고 수련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봤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점수(漸修)를 해야 돈오(頓悟)가 되는 그런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요.

마음에 의해서 잡히는 것은 모두 상(相)일 뿐 마음의 본질은 결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세념도 멀리 떠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을 얻은 것입니다.(得見心性) 그럼 본성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얻는다(得)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얻을 '누가' 있고, 얻어질 '무엇' 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말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바에 의하면 본성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도 없는데,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있고 없음마저도 개념일 뿐인데 본성을 얻는다는 개념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는 마음의 작용을 보아서 더 이상 그 작용 속에 에너지가 머물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일 뿐, 어떤 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본성을 얻은 자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용'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미세념을 떠나게 되면 마음의 본성을 발견한 것이니 마음은 늘 존재한다(心即常住)고 했는데 이것 역시 비유입니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허무함에 빠져 '깨우치나 그렇지 않으나 똑같네.' 라고 말할 사람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초상(初相)이 없음을 발견한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뿌리박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라는 개인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성이 전혀 없거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냥 임시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일컬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상주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심무초상(心無初相)을 발견한 사람, 즉 흔들릴 내가 없음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심즉상주(心即常住)라 했을 뿐, 실제로 잡히는 상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작용의 일어남이고, 그것을 통해 변화와 작용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을 바로 궁극적인 깨달음인 구경각(究竟覺)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결국은 구경각(究竟覺)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맨 처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은 나와 부처의 차이가 없다는 일원론입니다. 그러나 실제 훈련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애써 노력하는 것이 이원론의 차원이고,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를 넘어서면 다시 일원론으로 돌아옵니다. 부처와 중생이 일종의 개념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개념을 떠나면 부처도 나도 없을 뿐인데, 처음에는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부처와 나는 둘이 아니야." 하는 일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련을 실천하면서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야."라는 이원론으로 빠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개념에서 벗어나면 나와 부처가 개념이었음을 알게 되어 거기로부터 떠난 것이지 내가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이론(不二論)입니다. 심무초상(心無初相)이 구경각(究竟覺)을 설명한 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지금 막 시작하거나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경험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 다시 나와 대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청년 백일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에너지 매니지먼트 2

성지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변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취업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 보다는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패턴을 그대로 둔다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터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과 백일학교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백일학교의 '전적으로 수용하기',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살펴보기' 와 같은 주제를 통해서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고 자신의 패턴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작업을 하며 깨어있기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며 정리된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요즘 청년인터뷰는 조금 더 나아가, 삶에서 자신의 주제를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한계를 바라보고,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발견함으로써, 하나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마음의 구조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통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에서 말하는 핵심적 통찰은, 모든 현상이 주체 대상의 동시발생을 통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 세계가 구현되는 과정의 이면에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는 최초의 분열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경험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의 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마음의 구조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과 경험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0대를 대상으로 백일학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했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깨어있기' 라는 본질에 대한 탐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깨어있기나 월인 선생님의 강의는 진지하게 탐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갑고 귀한 내용이지만 아직 20대의 청년들에게는 이런 탐구에 대한 토대가 없기에 그저 먼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본격적으로 마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과의 소통에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세상과 주변의 일반적인 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취업이나 결혼, 꿈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그것들이 너무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중적인 삶의 관점과 탐구자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티벳의 유명한 영성이 초감 트룽파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금강승의 의미에 대해서 물으면 항상 '단지 아티만이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편집자 주-아티ati : 깨달은 마음이라는 뜻의 티벳불교 용어) 그러나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화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에 트룽파는 서양인들을 근본적인 공부로 안내하기 위해 몇 가지 징검다리 수행을 도입하게 됩니다. 저희의 고민도 이러한 접점을 찾아가는 중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백일학교나 깨어있기 같은 과정을 전달하기 위해 그 전에 중간과정이 어떠한지 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발견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것은 청년들을 만나기 전에 고민했을 때는 모호했던 것들이 직접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방법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구가 시작되기 이전의 삶과 이후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의 삶은 결과를 쫓아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삶의 결과물, 반응물,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선사(禪師)들이 가리키는 달이라는, 현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우뚱하게 됩니다. 탐구의 시작은 바깥의 대상에서 이루어지지만, 핵심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에게로 마음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반응에 머물렀던 마음이 그것이 일어나는 작용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되며, 더 나아가 모든 현상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더 이상 저 바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든 우리는 서서히 저 바깥의 현상들이 더 이상 바깥의 일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자와 아직 탐구를 시작하지 않은 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여태껏 서로가 만나기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나 반응, 경험들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경험이 일어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내면의 탐구 사이에는 이런 일대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전환은 일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동안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액션플랜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며, 불안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내 기준' 과 '상황' 이 만나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단지 상황의 해결이나 결과만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달라지는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어느 시대보다도 숨 한번 고르지 못하고 결과를 쫓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본성을 향한 걸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래에 우현님께서 하고 계신 나와의 소통이나 이번에 공부와 관련된 새 강의를 보면서 일반적인 삶에 연결시켜주는 멋진 징검다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멀게만 여겨지는 본질과 현상이 만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백일학교도 시작한 만큼 지속적으로 청년들과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교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여타 모임에서 우리가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오인회회원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서 고민이 있는 청년이나 이러한 취지에 어울리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자리를 소개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반가운 소식은 한 명 두 명 만났던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서 연결을 시켜주거나, SNS에 인터뷰 경험을 게시했더니 글을 통해 연락이 닿아 저에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로 시작했던 인터뷰가 이제는 점점 구체화된 콘텐츠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문서화시켜 청년들이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이나 SNS로 공유하고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일학교의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정교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로와 목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는 교육단체와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강연이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섭외하여, 그들에게 스스로의 내면을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통찰력 게임이나 준비하고 있는 행동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적인 이슈나 문제, 각자의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후속 모임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5월에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와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당면과제를 나누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 일차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청년들과 만나며 프로그램을 정교화하면서 보완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는 1회적인 만남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장애를 넘어, 더욱 적극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대담하게 도전하고 싶은 과제를 진행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룹과는 정기적으로 만나며 진행 상황을 듣고 피드백을 나누며 실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해서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가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장해나가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피드백은 더 깊은 곳으로 확장해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마음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기준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틀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묶이지 않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구체화시켜 워크숍의 형태로 만들고, 이들을 참여시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마음의 패턴을 넘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습관들을 다룰 수 있는 간단한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이후로는 청년들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하는 단체나 모임에 이런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의안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약받지 않은 생명의 창조력을 발휘하면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나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청년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음의 기준을 들여다보고 그 신호를 발견해서 행동과 연결시키는 단순한 작업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살펴보는 과정 자체가 청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만남이 많이 필요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오인회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드림 (다음호에 계속됩니다.)